

#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김복순\*

## I. 머리말

우리나라 경제가 최근 몇 년간 저성장 흐름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고용의 증가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4년 취업자증가율은 전년대비 2.1%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2002년은 7%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2014년 분기별 성장률은 3%대를 넘지 못하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최근 2~3%대의 저성장 속에서도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취업자의 90%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체의 고용증가가 큰 몫을 했다. 특히 취업자의 40% 가까이가 5인 미만 영세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 사업체와 대규모 사업체 간의 격차는 어느 정도일까?. 최근 중소기업 사업체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이들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었다는 의미일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체의 신규채용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사업체 규모별로 고용현황을 살펴본 후, 중소기업 사업체와 대규모 사업체 간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업체 규모별로 근로자의 인적특성과 사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eesaram@kli.re.kr).

## II. 사업체 규모별 고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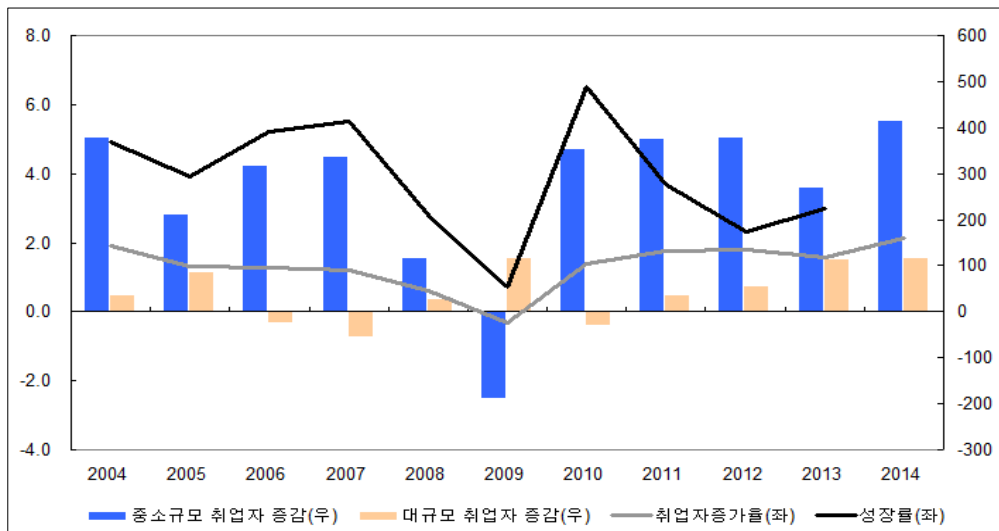
### 1. 중소기업 주도의 고용증가에 지속

2014년 우리나라 취업자는 25,599천 명으로 전년대비 533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고용은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큰 고용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다. 2014년 중소기업의 취업자는 전년대비 416천 명 증가하여 최근 10년 이내 가장 큰 고용증가폭을 기록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 또한 2년 연속 10만 명이 넘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체의 고용을 보면, 2014년에는 상용직 주도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둔화된 가운데 임시직의 고용(전년대비 134천 명 증가)이 크게 증가하였다. 늘어난 임시직은 25세 미만 청년층과 55세 이상 중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국제금융위기 이전부터 고용감소세가 컸던 중소기업 30대 연령층의 임시직 고용이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전환됨으로써 임시직 고용증가에 힘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3년 고용감소폭이 컸던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세가 확대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그림 1] 경제성장률·취업자증가율·사업체규모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원이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은 주로 5인 미만(전년대비 38천 명 증가) 영세소규모 사업체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의 고용 또한 상용직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418	299	295	282	145	-72	323	415	437	386	533
중 소 규 모	소 계	381	212	318	337	117	-189	354	378	381	272	416
	5인 미만	-55	148	99	4	-79	-440	-49	105	217	38	105
	5~9인	125	21	69	87	30	-20	127	56	100	97	89
	10~29인	96	14	55	124	73	120	95	123	85	4	114
	30~99인	131	22	47	109	55	114	155	-15	-6	129	66
	100~299인	83	6	47	13	38	37	26	108	-15	4	42
대 규모		38	88	-24	-55	28	117	-31	37	55	114	11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 사업체 규모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418	299	295	282	145	-72	323	415	437	386	533
중 소 규 모	소 계	381	212	318	337	117	-189	354	378	381	272	416
	상용직	310	210	306	440	366	298	695	537	355	505	328
	임시직	81	-32	89	54	-103	-12	-3	-80	22	-100	134
	(25세 미만)	2	-86	-74	-63	-34	-6	-1	25	45	-20	56
	(55세 이상)	14	34	30	85	28	98	20	28	136	112	94
	일용직	63	26	-7	-19	-56	-156	-143	-68	-117	-37	-3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9	-14	-32	-70	-35	-10	-18	6	43	-39	40
	(5인 미만)	42	10	11	-28	-26	-8	6	23	49	-9	38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7	77	-6	-15	-44	-249	-100	-5	81	-28	-39
	무급가족 종사자	-140	-56	-31	-53	-12	-59	-75	-12	-3	-30	-16
대 규 모	소 계	38	88	-24	-55	28	117	-31	37	55	114	117
	상용직	45	82	-19	-24	20	85	2	37	81	110	115
	임시직	-2	6	-2	-24	10	34	-30	3	-24	4	5
	일용직	-5	-2	-1	-7	-1	-2	-3	-2	-2	0	-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사업체 규모별로 연령별 고용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사업체는 55세 이상 중고령층과 25세 미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중소기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55세 이상 중고령층은 전년대비 366천 명 증가했으며, 이들은 주로 1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체에서 상용직 증가세가 둔화되고 임시직이 크게 증가했던 것과는 달리 이들 연령층에서는 상용직 증가폭이 확대 되는 등 임금근로자가 증가하고, 자영업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사업체 규모별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소 계	418	299	295	282	145	-72	323	415	437	386	533
	25세 미만	-26	-154	-199	-103	-114	-51	16	12	93	23	101
	25~29세	-2	26	20	35	-4	-76	-59	-47	-128	-73	-25
	30대	-5	-59	14	-100	-26	-173	-4	-47	-31	-21	-21
	40대	175	98	103	77	64	-24	29	57	11	22	38
	50~54세	95	202	183	169	148	125	149	122	103	89	50
	55세 이상	181	187	175	204	77	127	191	318	389	346	389
중 소 규 모	소 계	381	212	318	337	117	-189	354	378	381	272	416
	25세 미만	-35	-135	-167	-81	-105	-57	27	3	90	20	96
	(신규채용-임시직)	-	-19	-15	-30	-10	11	21	9	-3	0	10
	25~29세	-12	-7	13	37	-19	-47	-51	-64	-104	-58	-55
	30대	-1	-58	9	-91	-36	-219	31	-41	-83	-97	-19
	40대	162	58	104	91	77	-74	10	36	14	13	11
	50~54세	85	174	184	181	135	109	141	132	96	69	17
	55세 이상	182	179	175	200	65	99	196	312	368	325	366
대 규 모	10인 미만	81	157	95	102	45	-51	72	198	236	144	141
	소 계	38	88	-24	-55	28	117	-31	37	55	114	117
	25세 미만	9	-19	-32	-22	-9	6	-11	8	3	3	5
	25~29세	10	33	6	-2	15	-29	-8	16	-25	-15	30
	(신규채용-임시직)	-	-2	0	1	3	1	-2	1	-4	0	3
	30대	-3	-2	5	-9	10	46	-35	-6	52	76	-2
	40대	13	40	-1	-15	-13	50	20	22	-3	9	27
	50~54세	10	27	-2	-12	13	17	8	-9	7	20	33
55세 이상	-1	8	1	4	12	27	-5	6	21	21	2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편 2014년에는 25세 미만 청년층의 고용은 전년대비 101천 명 증가하면서 고용률은 25.8%로 전년대비 1.6%p 증가하였고, 실업률 또한 전년대비 0.7%p 상승하여 이들 연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령층 취업자 대부분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나마 새롭게 일자리를 얻은 이들 연령층의 신규채용은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25~29세 청년층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상용직과 임시직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30천 명 증가했지만 신규채용은 임시직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업체 규모별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299	295	282	145	-72	323	415	437	386	533
중 소 규모	소 계	212	318	337	117	-189	354	378	381	272	416
	제조업	-82	-51	-5	-8	-67	205	76	-41	39	79
	(5인 미만)	-4	6	-45	1	-52	23	16	-17	-27	-36
	서비스업	311	384	373	198	16	200	329	417	256	361
	(5인 미만)	131	123	128	2	-295	-47	86	178	70	200
	도소매업	-61	-29	-19	-38	-26	-7	57	58	-29	116
	음식숙박업	-4	-9	-3	5	-108	-52	-40	54	62	125
	(5인 미만)*	-85	9	-83	-39	-152	-118	-37	99	-9	146
	보건업 및 사회복지	47	48	40	89	155	156	151	89	129	127
	기타개인서비스업	46	52	72	9	-84	2	45	25	24	-13
	건설업	-6	21	19	-48	-102	44	2	18	-20	52
대 규모	소 계	88	-24	-55	28	117	-31	37	55	114	117
	제조업	35	-22	-37	-44	-60	-14	-13	55	41	67
	서비스업	51	-8	-17	61	163	0	57	-1	62	62
	도소매업	5	-6	-19	-4	-5	-13	1	-7	0	16
	음식숙박업	5	0	3	-10	0	5	4	-2	2	2
	보건업및사회복지	2	-6	19	14	1	-2	7	-1	26	12
	기타개인서비스업	3	-4	0	-3	-2	3	0	0	2	0
	건설업	2	-1	-3	11	11	-11	-5	4	1	-11

주 : \*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중 5인 미만 취업자의 고용증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산업별로 고용을 보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산업의 고용증가에 힘입은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에다 제조업의 고용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임시직의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 또한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전년대비 241천 명 증가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2013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전년대비 146천 명 증가하였다.

한편 제조업 고용은 대규모 사업체에서 3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사업체에서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146천 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고용은 전년대비 36천 명 감소하여 고용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업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 2.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은 중소기업 임시직에서

앞에서 살펴본 고용증가세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신규채용 규모는 줄어들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여전히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짝 증가했던 신규채용은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2014년에는 고용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임시직에서만 신규채용이 다소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또한 60세 이상 고령층(전년대비 16천 명 증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신규채용 규모 및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신규채용규모	2,693	2,785	2,843	2,738	2,828	2,837	2,757	2,649	2,612	2,610
	(증감)	68	92	57	-105	90	10	-81	-108	-37	-1
중소 규모	신규채용규모	2,601	2,695	2,763	2,652	2,727	2,738	2,657	2,567	2,525	2,533
	(증감)	69	94	67	-110	74	12	-81	-90	-43	8
	(임시직)	8	42	-41	-41	113	31	-81	-40	-51	18
대 규모	신규채용규모	91	90	80	85	101	99	99	82	87	77
	(증감)	0	-2	-10	5	16	-2	0	-18	5	-10

주: 신규채용은 임금근로자 중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Ⅲ.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 비교<sup>1)</sup>

#### 1.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비교

통계청이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에 의하면 2014년 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2% 상승하여 임금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2009년 2.3%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는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이 전년대비 2.3%에 머물러 2013년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둔화되었지만 대규모 사업체에서 임금상승률 둔화가 컸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 둔화는 상대적으로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수 · 시간당평균임금 · 시간당평균임금 증감률 추이

(단위: 만 원,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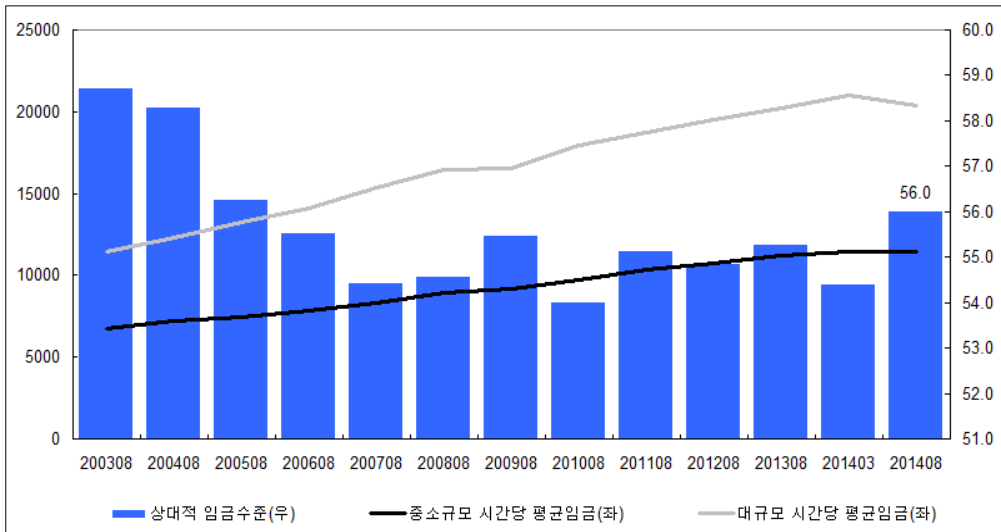
	임금상승률			월 평균임금				시간당 평균임금			
	전체	중소 규모	대규모	전체	중소 규모	대규모	상대 임금	전체	중소 규모	대규모	상대 임금
2004. 8	7.0 (10.6)	6.9	7.7	159.3	142.3	238.0	59.8	7,817	7,179	12,311	58.3
2005. 8	4.6 ( 1.3)	3.6	7.4	165.6	146.6	246.9	59.4	8,174	7,441	13,221	56.3
2006. 8	5.2 ( 5.4)	5.4	6.8	174.5	152.7	260.1	58.7	8,597	7,844	14,123	55.5
2007. 8	6.4 ( 6.4)	6.3	8.5	184.6	160.7	280.7	57.2	9,146	8,340	15,322	54.4
2008. 8	7.4 ( 3.5)	7.5	7.2	185.2	170.1	296.3	57.4	9,826	8,968	16,428	54.6
2009. 8	2.3 (-4.7)	2.2	0.5	194.9	170.2	293.5	58.0	10,053	9,160	16,512	55.5
2010. 8	5.8 ( 6.4)	6.0	8.8	203.2	179.4	316.4	56.7	10,641	9,706	17,968	54.0
2011. 8	5.8 ( 9.8)	6.2	4.1	210.4	187.7	326.2	57.5	11,253	10,312	18,702	55.1
2012. 8	4.5 ( 2.8)	4.0	4.5	217.1	192.9	341.9	56.4	11,758	10,722	19,541	54.9
2013. 8	4.2 ( 4.5)	4.2	3.4	218.1	199.6	354.0	56.4	12,256	11,171	20,205	55.3
2014. 8	2.2 ( 1.6)	2.3	1.0	223.1	204.0	359.8	56.7	12,526	11,424	20,397	56.0

주: 임금상승률은 시간당 평균임금 기준이며, ( )안은 비정규직 임금상승률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 1) 본고에서는 사업체 규모별 임금과 근로조건을 비교하기 위해 최근 데이터(2014년)를 활용할 수 있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를 이용하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단위가 ‘가구’인 반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실시하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2)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의하면 2014년 8월 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5.0% 상승하여 임금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 사업체 규모별 시간당 평균임금 및 상대적 임금수준 추이

(단위: 원, %)



주: 대규모 사업체의 시간당 평균임금 대비 중소기업의 시간당 평균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한 시간당 평균임금을 사업체 규모별로 비교해 보면, 2014년 8월 기준 중소기업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1,424원이며, 이는 대규모 사업체의 56.0% 수준으로 임금격차가 전년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보듯이 월 평균임금이든 시간당 평균임금이든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규모 사업체의 절반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10년 전에 비해 임금격차가 다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두드러진 이중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임금수준은 대규모 사업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체규모별 근로형태별 임금수준을 보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시간당 평균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68.4%, 대규모 사업체의 비정규직은 66.1%에 불과하며,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또한 전년대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사업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확대는 비정규직의 임금하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비정규직 근로형태 중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간제 근로의 고용이 증가(전년동월대비 148천 명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 근로의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수준은 2014년 54.0%로 일일근로(53.5%), 기대불가(51.6%), 용역 근로(51.8%), 가정내 근로(27.8%)와 더불어 임금수준이 낮은 근로형태이다.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근로형태별로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의 정규직 임금수준은 대규모 사업체 정규직의 59.5%로 나타나 최근 59%대에 정체되어 있는 반면, 비정규직



의 임금수준은 61.6%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부표 1, 부표 2 참조).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대규모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1,568원인 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인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8,779원으로 나

〈표 7〉 대규모·중소규모 사업체 내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수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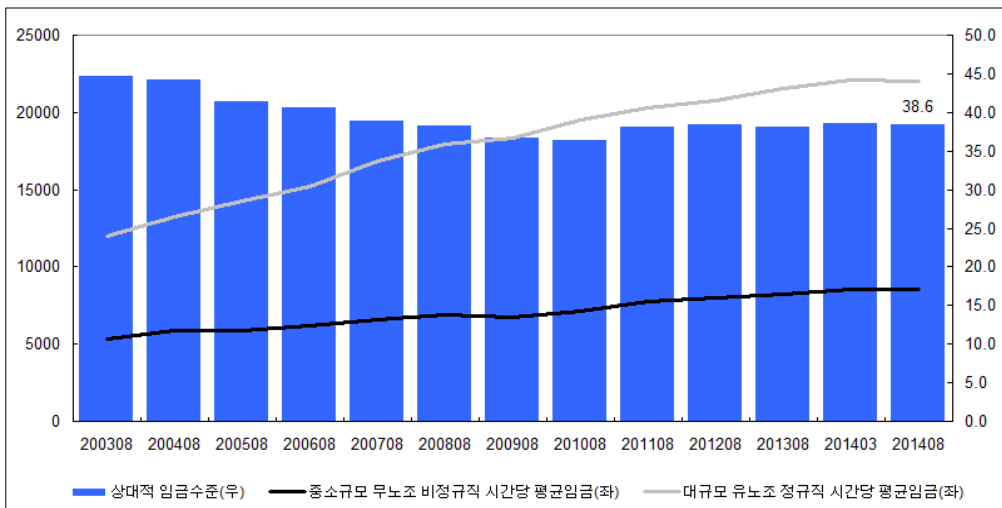
(단위: 원, %)

	중소규모			대규모			A*
	정규직	비정규직	상대 임금수준	정규직	비정규직	상대 임금수준	
2004. 8	7,856	6,136	78.1	13,005	9,600	73.8	41.6
2005. 8	8,260	6,165	74.6	13,900	10,462	75.3	40.8
2006. 8	8,692	6,440	74.1	14,692	11,854	80.7	39.1
2007. 8	9,226	6,898	74.8	16,036	12,375	77.2	38.5
2008. 8	9,981	7,162	71.8	17,199	12,751	74.1	36.9
2009. 8	10,504	6,909	65.8	17,693	10,796	61.0	36.6
2010. 8	11,007	7,356	66.8	19,058	11,992	62.9	38.2
2011. 8	11,639	7,992	68.7	19,635	14,203	72.3	38.6
2012. 8	12,085	8,281	68.5	20,487	14,040	68.5	38.3
2013. 8	12,555	8,598	68.5	21,099	15,214	72.1	38.6
2014. 8	12,828	8,779	68.4	21,568	14,257	66.1	40.7

주: A\*는 대규모 사업체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수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3〉 대규모 유노조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 상대임금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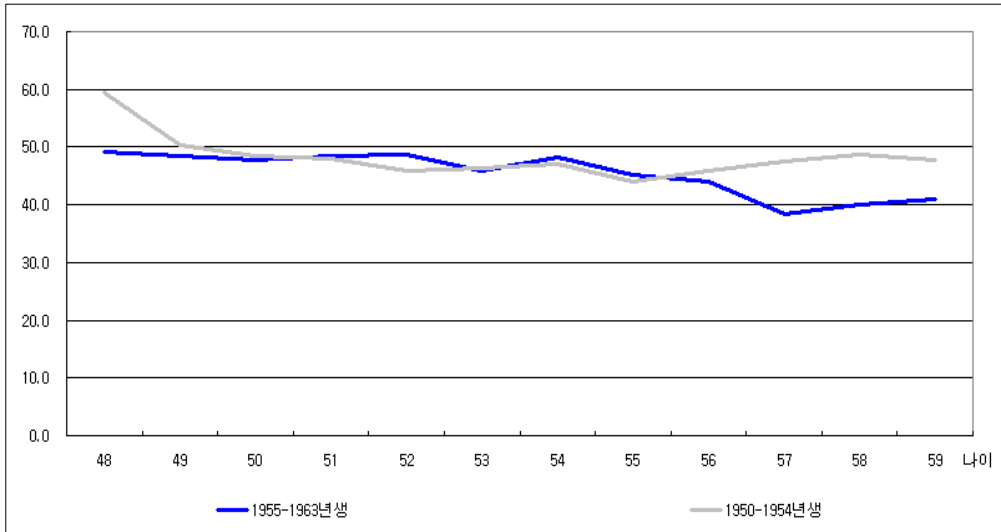
(단위: 원,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베이비부머와 이전세대의 사업체 규모별 상대임금 수준(코호트 분석)

(단위: %, 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원자료.

타나 이들 간의 상대임금수준은 40.7%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대규모 사업체의 비정규직의 임금은 중소기업체 정규직의 임금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대규모 유노조 사업체의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체 무노조 사업체의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38.6%에 불과해 10년 전 수준보다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은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는 이전 세대(1950~1954년생)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베이비부머가 54세 이후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다 58~59세에 좁혀지는 모습으로 이전 세대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별에다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까지 가중된 구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사업체 규모별 근로조건 비교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수준 또한 10년 전에 비해 확대되었다면 일자리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 고용안정성, 사회보험가입률, 복지수혜율 등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업체 규모별 고용안정성, 사회보험가입률, 복지수혜율 측면에서의 차이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사업체 규모별 평균 근속연수

(단위 : 년)

	중소규모					대규모				
	전체	비정규/ 무노조	비정규/ 유노조	정규/ 무노조	정규/ 유노조	전체	비정규/무 노조	비정규/ 유노조	정규/ 무노조	정규/ 유노조
2004. 8	3.7	1.5	3.8	3.7	9.3	9.2	3.9	5.4	9.7	10.7
2005. 8	3.8	1.6	3.5	3.9	9.5	9.4	3.4	5.8	9.5	11.3
2006. 8	3.8	1.6	3.8	3.8	9.5	9.6	4.0	6.2	9.2	11.5
2007. 8	3.9	1.7	3.7	3.7	9.9	9.8	4.3	6.5	8.2	11.9
2008. 8	4.1	1.7	3.2	3.8	10.2	9.8	3.9	4.5	7.6	12.4
2009. 8	4.2	1.6	2.2	4.1	11.0	9.7	2.3	3.2	8.0	12.4
2010. 8	4.3	1.8	2.7	4.2	10.8	10.1	2.8	3.9	8.7	12.4
2011. 8	4.5	1.9	3.2	4.3	11.2	10.0	4.1	4.1	8.4	12.5
2012. 8	4.6	2.1	3.2	4.5	11.3	10.6	3.5	3.6	9.0	12.8
2013. 8	4.9	2.2	3.4	4.7	11.6	10.6	4.1	4.3	8.5	13.0
2014. 8	4.9	2.2	3.4	4.7	11.2	10.7	3.8	4.3	9.1	13.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9〉 사업체 규모별 사회보험가입률, 복지수혜율, 노조조직률 추이

(단위 : %)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2009. 8	2010. 8	2011. 8	2012. 8	2013. 8	2014. 8
국민연금 가입률	중소규모	54.5	56.5	58.2	59.1	60.3	60.6	61.0	61.5	62.7	63.7	64.1
	대규모	95.1	95.1	95.1	95.0	95.5	94.4	95.6	93.9	95.5	95.5	95.6
건강보험 가입률	중소규모	56.5	57.0	58.9	60.4	61.7	63.2	63.4	64.9	66.5	67.9	67.9
	대규모	95.6	95.2	95.3	95.6	95.8	95.1	96.0	95.2	96.2	96.8	96.3
고용보험 가입률	중소규모	48.2	49.1	51.0	52.1	54.0	56.3	60.0	61.5	62.9	64.4	65.5
	대규모	79.7	80.7	81.1	79.7	78.0	77.5	93.7	93.4	95.1	95.5	95.7
퇴직금 수혜율	중소규모	51.3	51.4	50.4	47.1	42.8	42.6	40.8	38.8	37.0	35.5	35.4
	대규모	91.7	91.7	90.8	93.1	93.7	90.7	93.2	92.6	94.5	94.7	94.5
상여금 수혜율	중소규모	53.8	53.5	51.7	48.7	48.0	43.0	38.9	38.2	36.8	33.8	34.0
	대규모	90.0	90.5	90.1	91.8	91.4	89.5	92.4	90.6	92.7	93.4	93.1
시간외수당 수혜율	중소규모	62.4	62.5	63.1	61.9	62.8	61.5	60.4	60.7	59.9	57.5	57.4
	대규모	84.4	85.4	82.4	82.7	82.3	77.7	82.6	78.6	83.3	84.3	83.6
유급휴가 수혜율	중소규모	60.2	61.1	61.8	55.3	52.3	47.7	45.6	48.6	46.6	44.5	44.4
	대규모	87.6	87.1	83.9	88.9	92.2	91.3	92.5	92.0	92.5	93.1	93.4
노조 조직률	중소규모	9.1	8.4	8.0	8.8	9.4	8.9	8.3	8.1	8.2	8.8	8.9
	대규모	36.3	34.6	35.5	37.1	38.3	35.7	35.9	33.2	36.0	38.4	38.1

주 :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0년부터 통계청 보도자료와 일치하지 않음. 이는 2010년부터 고용보험 비가입대상인 공무원, 교사, 별정우체국 직원을 분모에서 제외한 결과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사업체 규모별 근속연수를 보면, 중소기업의 근속연수는 4.9년인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근속연수는 10.7년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임금수준으로 근로자의 이직이 잦은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근로자들, 특히 무노조 사업체 근로자들의 근속연수는 유노조 사업체에 비해 짧을 뿐만 아니라 무노조 사업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은 더욱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사회보험가입률과 복지수혜율도 대규모 사업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률을 보면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으나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60%대로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 사회보험 가입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 복지수혜율과 노조조직률 또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기준 중소기업의 복지수혜율은 시간외수당 수혜율만 겨우 50%를 넘고, 이 또한 10년 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퇴직금 수혜율, 상여금 수혜율, 시간외수

〈표 10〉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의 사회보험가입률, 복지수혜율, 노조조직률 추이

(단위 : %)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2009. 8	2010. 8	2011. 8	2012. 8	2013. 8	2014. 8
국민연금 가입률	중소규모	34.3	33.5	35.1	37.3	36.4	35.9	35.9	36.0	36.9	37.1	35.9
	대규모	80.9	79.6	80.9	81.1	79.6	74.5	76.2	74.4	77.0	75.4	77.0
건강보험 가입률	중소규모	36.9	34.6	37.0	39.9	39.0	41.1	40.2	42.0	43.5	44.1	42.5
	대규모	83.5	79.9	81.6	82.3	80.7	79.3	77.8	79.2	80.3	80.8	79.1
고용보험 가입률	중소규모	33.1	31.6	33.4	36.6	37.0	40.6	39.2	40.3	41.5	41.7	41.7
	대규모	76.0	73.9	76.3	77.7	74.5	75.6	75.6	78.4	79.5	77.8	79.4
퇴직금 수혜율	중소규모	28.4	25.9	27.5	32.1	33.4	31.4	34.4	36.7	37.9	38.2	37.6
	대규모	71.4	68.2	69.7	75.5	71.5	54.1	62.7	66.8	69.8	67.6	68.8
상여금 수혜율	중소규모	24.7	22.6	24.8	28.4	25.6	28.4	34.1	33.9	35.0	38.7	38.1
	대규모	66.3	65.1	67.3	72.1	64.6	52.7	61.3	62.3	63.4	65.9	64.7
시간외수당 수혜율	중소규모	19.2	18.2	18.8	21.4	18.6	19.0	21.0	20.5	21.5	22.8	22.3
	대규모	62.3	60.1	58.5	59.9	54.5	42.7	50.5	47.7	53.1	60.8	55.1
유급휴가 수혜율	중소규모	21.5	19.8	20.4	26.0	25.4	29.6	31.7	28.2	30.2	30.9	29.6
	대규모	34.0	38.1	38.7	30.0	30.6	34.3	32.9	31.9	33.7	31.9	31.1
노조 조직률	중소규모	4.1	3.7	3.5	4.2	3.5	2.1	2.5	2.2	2.5	2.4	2.4
	대규모	19.4	16.4	15.6	18.4	18.3	8.8	8.9	9.8	11.1	13.0	14.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당 수혜율, 유급휴가 수혜율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체의 복지수혜율은 시간외수당 수혜율만 80% 초반에 정체되어 있고 나머지 복지수혜율은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조조직률 또한 대규모 사업체는 38.1%인 반면 중소기업 사업체는 8%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 각종 복지수혜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복지수혜율은 더욱 저조하다. 주목할 점은 대규모 사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고용보험가입률 제외)과 복지수혜율은 10년 전과 비교할 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민연금가입률은 80.9%→77.0%, 건강보험가입률은 83.5%→79.1%, 퇴직금 수혜율은 71.4%→68.8%, 상여금 수혜율은 66.3%→64.7%, 시간외수당 수혜율은 62.3%→55.1%, 유급휴가 수혜율은 34.0%→31.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사업체 규모별 임금결정요인 및 임금격차 분해

시간당 평균임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근로자의 인적특성과 사업체의 특성을 설명변수로 한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OLS 회귀분석), 대부분의 설명변수가 임금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성별 임금격차, 노조의 임금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 관심 있는 사업체 규모변수가 임금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사업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2014년에는 더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체에서 성별임금격차 또한 2014년에는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과의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조의 임금효과는 대규모 사업체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앞에서 확인했듯이 대규모 사업체의 노조조직률이 높아 노조의 임금효과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체 규모별 임금식을 추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임금격차 요인분해를 한 결과 대규모 사업체와 중소기업 사업체 간의 임금(로그)차이는 0.621~0.665이다. 이 중 근로자의 인적특성과 사업체 특성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72.4~74.4%이고, 나머지 25.6~27.6%는 관찰되지 않는 차이, 즉 설명할 수 없는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중소기업 사업체와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자들이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노동시장의 보이지 않는 요인에 의해 임금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1〉 사업체 규모별 임금결정요인

	2007			2014		
	임금근로자	중소규모	대규모	임금근로자	중소규모	대규모
상수항	8.092 ***	7.926 ***	8.040 ***	8.393 ***	8.258 ***	8.003 ***
성(여성=1)	-0.264 ***	-0.272 ***	-0.210 ***	-0.250 ***	-0.253 ***	-0.211 ***
연령	0.049 ***	0.050 ***	0.040 ***	0.044 ***	0.044 ***	0.049 ***
연령제곱	-0.001 ***	-0.001 ***	0.000 ***	-0.001 ***	-0.001 ***	0.000 ***
고졸(고졸 이하=1)	0.116 ***	0.107 ***	0.245 ***	0.056 ***	0.046 ***	0.302 ***
전문대졸	0.203 ***	0.192 ***	0.349 ***	0.168 ***	0.160 ***	0.380 ***
대졸 이상	0.363 ***	0.347 ***	0.550 ***	0.283 ***	0.273 ***	0.525 ***
근속기간	0.004 ***	0.004 ***	0.003 ***	0.002 ***	0.002 ***	0.002 ***
근속기간제곱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근로형태(비정규직=1)	-0.013 *	-0.002	-0.115 ***	-0.061 ***	-0.044 ***	-0.241 ***
노조(노조있음=1)	0.117 ***	0.125 ***	0.058 ***	0.107 ***	0.131 ***	-0.015
도소매업(제조업=1)	-0.086 ***	-0.085 ***	-0.125 ***	-0.135 ***	-0.137 ***	-0.034
음식숙박업	-0.143 ***	-0.143 ***	-0.086	-0.197 ***	-0.198 ***	-0.080
보건업 등	-0.032 **	-0.035 **	-0.014	-0.143 ***	-0.144 ***	-0.111 ***
건설업	0.032 ***	0.030 *	0.100 **	0.019 *	0.021 *	-0.033
기타	-0.025 ***	-0.027 ***	-0.034 *	-0.071 ***	-0.073 ***	-0.077 ***
전문가 직종(사무직=1)	0.100 ***	0.088 ***	0.141 ***	0.100 ***	0.075 ***	0.201 ***
서비스판매직	-0.163 ***	-0.181 ***	-0.068 **	-0.136 ***	-0.156 ***	-0.053
기능원·장치기계관련직	-0.200 ***	-0.232 ***	-0.019	-0.131 ***	-0.157 ***	-0.002
단순노무직	-0.389 ***	-0.411 ***	-0.269 ***	-0.330 ***	-0.353 ***	-0.238 ***
농림어업관련직	-0.403 ***	-0.426 ***	-0.170 ***	-0.255 ***	-0.291 ***	0.142
사업체 규모(중소규모=1)	-0.174 ***			-0.173 ***		
adjusted R <sup>2</sup>	0.593	0.548	0.547	0.588	0.545	0.523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2〉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분해

	2007	2013	2014
중소규모 임금(로그)	8.927	9.063	9.082
대규모 임금(로그)	9.592	9.711	9.703
임금격차	-0.665	-0.648	-0.621
설명가능한 요인에 의한 격차	-0.495 (74.4)	-0.468 (72.4)	-0.459 (73.9)
관찰되지 않는 요인에 의한 격차	-0.170 (25.6)	-0.179 (27.6)	-0.162 (26.1)

주: 실질 시간당 평균임금 기준임.  
 Blinder-Oaxaca 방법을 이용하여 분해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 IV. 맺음말

중소규모의 취업자는 2014년 416천 명 증가하는 등 최근의 고용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도 고용증가세가 4년 연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내수에 기반을 둔 산업,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시직, 중고령층, 중소기업 사업체를 중심으로 괜찮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는 고용증가라는 점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규모 사업체의 임금수준이나 사회보험가입률, 복지수혜율, 노조조직률은 대규모 사업체에 비해 열악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일자리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임금’을 기준으로 볼 때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는 10년 전에 비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사업체의 최근 고용증가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이런 현실에서 중소기업 사업체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수단을 찾아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규모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다른 일자리 지표인 고용안정성과 사회보험·복지 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낮아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느끼는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이들을 고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일한 속성을 지닌 근로자라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관찰되지 않는 요인에 의한 임금격차의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보다 커진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체 규모별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별에다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까지 가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책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KLI**

〈부표 1〉 고용형태별 고용 증감 및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수준

(단위: 천 명, %)

	고용증감											
	비정규 직	한시적 근로	기간제	반복 갱신	기대 불가	비전형 근로	파견	용역	특수형 태근로	가정내 근로	일일 근로	시간제 근로
2004. 8	788	584	88	332	163	270	19	67	111	5	77	143
2005. 8	89	18	236	-278	59	-41	1	18	-78	-30	52	-28
2006. 8	-26	12	-6	164	-146	26	13	68	-16	34	-51	91
2007. 8	246	-80	-190	90	21	275	44	94	18	-50	179	66
2008. 8	-258	-258	-166	-181	89	-71	-35	48	-40	-60	-27	27
2009. 8	309	219	450	-204	-28	146	26	-19	42	34	65	198
2010. 8	-69	-226	-321	135	-40	7	45	-14	-47	-29	-13	194
2011. 8	309	162	174	34	-46	138	-14	64	24	5	93	82
2012. 8	-83	-40	46	-50	-36	-141	17	9	-69	-6	-91	125
2013. 8	34	29	47	-31	12	-72	-10	-36	-0	4	-50	57
2014. 3	179	70	-5	162	-86	-57	-30	-49	-6	12	-2	159
2014. 8	131	76	-11	95	-7	-102	-10	-42	-21	-15	-16	148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수준											
2004. 8	73.5	75.9	75.6	96.3	54.7	66.0	78.0	50.0	86.1	43.1	55.2	80.2
2005. 8	70.5	72.4	74.5	89.1	54.1	63.2	76.1	48.4	83.2	47.8	53.7	76.7
2006. 8	71.0	74.3	74.6	94.0	51.3	60.1	66.3	46.1	81.4	42.9	51.5	73.1
2007. 8	70.9	76.1	76.3	98.1	48.0	60.1	70.8	48.4	79.9	34.9	52.0	66.6
2008. 8	68.0	72.7	75.1	88.4	51.6	59.4	71.3	49.1	79.7	36.4	51.2	64.7
2009. 8	61.5	64.1	65.5	87.2	48.7	57.0	69.7	47.9	75.4	37.1	47.6	56.2
2010. 8	62.5	66.2	65.8	100.8	46.4	57.4	64.5	50.3	77.1	31.3	49.0	55.5
2011. 8	65.3	69.3	69.0	93.7	52.4	58.5	66.5	49.8	82.4	34.9	47.4	59.3
2012. 8	64.3	69.0	69.4	86.5	54.2	58.7	73.4	48.9	78.4	41.6	50.1	53.3
2013. 8	64.8	69.1	69.2	96.0	50.9	58.3	62.8	52.0	76.1	33.3	51.5	55.5
2014. 3	65.5	69.0	68.6	88.5	51.6	60.0	63.1	52.0	78.7	58.3	52.1	57.4
2014. 8	64.3	67.7	67.8	85.8	51.6	60.8	60.8	51.8	84.0	27.8	53.5	54.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표 2〉 대규모 사업체 근로형태별 시간당 평균임금 대비 중소기업의 상대적 임금수준 (단위: %)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시간제 근로
				기간제	파견	용역			
2004. 8	58.3	60.4	63.9	63.2	62.8	78.3	64.5	85.0	80.7
2005. 8	56.3	59.4	58.9	58.1	60.6	68.1	55.9	85.1	64.0
2006. 8	55.5	59.2	54.3	53.9	54.3	72.0	72.0	70.3	49.8
2007. 8	54.4	57.5	55.7	56.1	60.5	90.7	89.3	80.5	72.5
2008. 8	54.6	58.0	56.2	57.8	60.9	85.3	102.8	70.0	61.5
2009. 8	55.5	59.4	64.0	67.5	70.8	57.8	83.1	69.8	62.3
2010. 8	54.0	57.8	61.3	64.7	71.4	64.3	71.9	77.4	53.3
2011. 8	55.1	59.3	56.3	57.9	61.2	63.1	86.5	61.0	50.4
2012. 8	54.9	59.0	59.0	61.9	62.5	71.4	80.4	72.6	56.9
2013. 8	55.3	59.5	56.5	58.3	61.9	75.5	87.3	70.4	46.3
2014. 8	56.0	59.5	61.6	62.3	66.1	73.6	61.6	71.0	66.6

주: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형태별 시간당 평균임금 대비 중소기업의 시간당 평균임금 수준임.  
 한시적 근로는 기간제/반복갱신/기대불가, 비전형근로는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가정내근로/일일근로로 구분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